

사설

수해복구 내 일처럼

대재앙의 예고인가. 지구 곳곳에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가 하면 한쪽은 때아닌 홍수로 고통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의 수확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는 예측할 수 없는 비로 물난리를 겪고 있다.

며칠전 지리산에 퍼부는 비가 계속에서 휴가를 즐기던 사람들을 휩쓸어 갔다. 그 시신을 채 수습하기도 전에 서울과 경기를 강타한 비는 인명과 재산의 천문학적 손실을 안겨주었다. 그런데도 아직 그 수마는 물러가지 않았다. 어디를 어떻게 칠지도 무지 혼잡을 수 없는 이 계절적 호우를 기상학자들은 엘니뇨의 산물이라고 진단한다.

엘니뇨는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기 보다 인간이 만든 재앙이다. 세계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도 거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정책결정권자들은 환경과 기상에 대한 전망을 갖고 이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그게 꿈같은 가만 같다.

그동안 담파적 이기에 빠져 소모적 정쟁에 몰두하던 선량 아닌 선량들이 홍수가 났다 하니 괜시리 현장을 기웃거리며 하나마나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국민들은 이들을 준엄하게 다스려 주권의 소재와 권력의 원천을 분명히 자각시켜 줄 일이다. 어디 국회의원인가. 관료와 행정가들의 책임은 더욱 크다. 홍수만 해도 재작년에 그 난리를 겪었으니 문제점이나 대비책에 대한 구상은 이미 나와 있었다. 송과구처럼 그 심각성을 의식하고 대비를 적극 강구할 수는 수마(水魔)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켰다. 다른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행정관리는 여전히 하늘의 무심함만 탓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무책임과 무

소신의 전형이다. 대체 언제까지 이웃과 동포의 원시적 운명에 기대어 사후약방문, 소망고 외양간 고치는 전철을 되풀이 하려는가. 그 전에 보다 과학적이고 냉철하게 사태를 준비하고 대처하는 지혜와 능력부터 갖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더라도 재난은 이미 우리 앞에 있다. 벌어진 재난을 수습하고 고통을 덜어가는 데 모두가 동참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각계의 성공과 물자가 담지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내일 인 듯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이웃과 더불어 살고 있음을 눈물겹게 실감케 하는 일이다. 종교계도 이 동체대비(同體大悲)에 예외일 수 없다. 특히 불교계는 수해구호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인 재난구호활동에 나섰다. 무엇보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영혼을 천도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용기를 북돋우는 것이 급선무이다.

벌써 베이스캠프를 설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구호금과 물자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전달하려면 의욕만 갖고는 부족하다.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사관(事判)으로서의 지혜가 절실한 때이다. 이 일에서 지역을 따지고 종교를 따지고 계층을 따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선행정에서는 그런 폐단이 노정되어 원성을 사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사안이 사인이나만큼 이 일은 조계종이 주관하되, 전 불교계의 통합된 울림과 동심(同心)을 결집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종파를 넘어 종교계 일반의 통합 사업으로 연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평소의 반목과 질시를 넘어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이해를 도모하는 다윈주의적 공존과 화해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국민회의 “혜불방지 노력” 연등회

종교편향대책위와 면담서

국민회의 연등회(회장 박상규)는 5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혜불 및 종교편향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등회간사인 조성준의원은 이날 종교편향대책위원들과의 면담에서 “관련기관인 국방부 경찰청 행정자치부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견제회 차원의 대응과 이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연등회의 요구

로 포교원에서 이뤄졌다. 조의원은 또 “바른 시일내에 27기 청와대발자의 구성을 협의하고 국회정각회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공동조사위원장 진관스님과, 조사위원 방인스님, 종교편향대책위 공동위원장 원혜스님, 새불교승가회 도관스님, 조성준 정한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8일 조계사에서 열린 '혜불척결 결의대회'에 참가한 불자들이 혜불사진 등을 들고 방담을 들고 있다.

새불교승가회-경불련-대불청등 21개 단체 정부 혜불방지책 거둬 촉구

8일 결의대회 열어

새불교운동장국승가회 경불련 대불청 등 종교편향대책위 참가 21개 단체 회원 2백여명은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국민정부 혜불방지책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종교편향과 재발방지를 위한 '혜불방지책'을 불교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이날 법회는 참회기도와 법문 발원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현근스님(조계사 주지)은 법문을 통해 “진정한 자비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끄는 것”이라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교 편향과 혜불민행을 일삼는 이교도의 지도자들이 대오각성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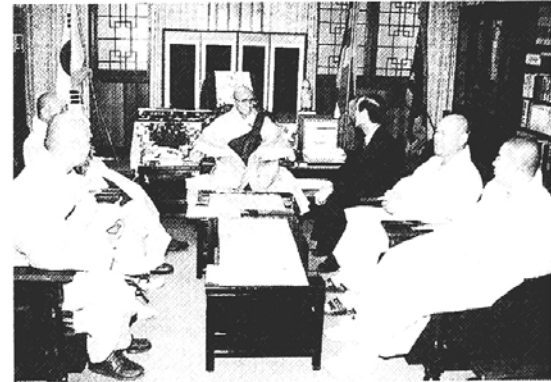
참석자들은 결의대회 후 조계사-세종문화회관-정부종합청사에 이르는 구간에서 침묵가행진을 계획했으나, 폭우로 취소하고 제주 원명선원 혜불방지 사진과 '정법수호 날선 칼로 혜

불만행 뿌리뽑자'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대웅전 주위를 돌며 석가모니불을 정근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제주불교총연합회 호법대책위원회(위원장 도중·월라사주지)도 8일 보현사 대웅전에서 '교권수호를 위한 제주불교대표자 호법법회'를 열고 편향없는 종교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보장과 타종교인에 대한 위대나 성물, 종교 시설에 대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법규정을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총무원과 국회는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정성운·김종근 기자 (swjung@buddho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0일 불국사주지 성타스님과 이원식 경주시장에게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단차원의 적극적 동참 의사를 밝혔다.

조계종 경주문화엑스포 적극 동참

조계종은 '새 천년의 미소'를 주제로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개월간 경주에서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0일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과 이원식 경주시장, 이용택 경주관광개발공사 사장 일행의 예방을 받고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이 되는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중단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번

엑스포 행사에 불교 관련 행사가 적지 않는데 주목, 이날 말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소집 문화엑스포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방침이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는 9월 18일부터 3일간 불국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오페라 '원효'가 공연되고 10월에는 영산대제가 펼쳐진다. 특히 불국사는 엑스포와 관련 자체 행사로 김영동 '천년의 소리' 공연과 국악 예술공연을 마련한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opia.com)

대홍사 차기주지에 보선스님 추대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해남 대홍사는 10일 산중총회를 열어 차기 주지 추천자로 현 부주지 보선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보선스님은 66년 천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72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82년 불국사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전남 백련사 주지, 총무원 호법국장 등을 역임했다. 보선스님은 “불교발전은 위해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치겠

다”고 말했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opia.com)

종교인협 8·15 맞아 민족화합 메시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월주)는 광복절 53주년을 맞아 13일 오후2시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대국민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구기도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선언문을 통해 “민족의 화합과 통일, 그리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모든 종교인들과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종교인들은 종교인 본연의 자세로 남북의 화합 기틀을 다져 나가자고 당부했다.

△ 남북의 지도자들을 향해 △ 4남북공동 성명의 정신과 91년 남북 고위급회담의 정신을 살려 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적 대화의 장을 넓혀 △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임연태 기자

종산한식 동기와 판매 및 시공

- ◆ 서포터즈 기와때문에 천년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전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기쁨, 풍산 한식 동기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대표 최 대용 회장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成源産業

현대만평

현대만평



올 여름 휴가비는...

737-8881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옥도장 축제

경주인업사가 함께하는

· 축제기간 ▶ 1998년 11월 10일까지

축제 1 : 천연보석인장을 사주(四柱) 운명학술, 성명(姓名) 철학 해드립니다.

축제 2 : 보석인장 시증가 ₩50,000~₩100,000 상품을 행사중에는 ₩35,000에 조각하여 판매함.

축제 3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입장권 1매 보너스 증정.

저의 기술은 30년의 전통으로 당신의 사주 운명 철학을 풀이하여 섬세하게 조각해 드립니다. 본 인장업은 요번 행사에 경주문화 엑스포 지정 후원업체로서 경주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엑스포의 성공을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 주문하실 때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거래은행

전화·FAX·우편주문가능/단체주문 환영합니다.

제일은행 : 755-20-213591 농업 : 749-01-090147
 우체국 : 700047-0377063-12 예금주 : 풍태준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착시켜 드립니다.

주문처

7800-0200
 경주시 노동동 172-5번지 (농협중앙회 앞)

경주인업사

전화 : (0561)43-6922/772-6922
 FAX : (0561)745-6922

◎ 부모님께 선물하세요/연인끼리 간직하면 좋아요 ◎

■ 엑스포 입장권 제외시에는 30,000원입니다. ■